

전남도 드론산업 7787억 투입 3400명 고용창출

2025년까지 3개 분야 11개 사업

권역별 특성 맞게 핵심 과제 4개 선정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유망 모델 창출

전남도가 지역전략산업인 드론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2025년까지 3개 분야 11개 사업에 7787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6년간 투자를 통해 270개 기업 육성, 3400명 고용 창출, 매출 4000억원을 달성

성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경남, 강원, 부산 등 타 시도에서 드론 산업에 관심을 쏟고 있는 가운데 인프라와 여건 등에서 뛰어난 장점을 부각시켜 선점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윤병태 전남도 정부부지사는 2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남이 국가 드론산업 중심지로, 전국 최대 규모의 비행시험 공역,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등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만큼 빛가람혁신도시의 공공기관과 연계해 농림수산, 재생에너지, 섬해양, 전력

설비감시 등의 분야에서 유망비즈니스 모델을 창출

하겠다"고 밝혔다. 고흥은 지난 2015년 말 국토교통부로부터 드론 시범공역으로 전국 최대 규모인 직경 22km가 지정된 바 있으며, 413억원의 예산으로 활주로 1.2km 등의 시설을 갖춘 국가 종합비행성능시험장도 오는 2021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

전남도는 중부·서부·동부 등 권역별 특성에 맞게 드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면서 국가종합비행성능 시험장과 연계해 국내 유·무인기 개발·시험평가·통

합인증·기억지원 원스톱 종합지원체계 구축 등 핵심과제 4개를 선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미래형 개인 비행체 연구개발·실증 테스트베드 조성 및 유·무인기 및 항공 MRO 특화생산단지 조성 ▲드론기반 재생에너지 유지 보수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드론 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도 핵심과제에 포함됐다.

나주 등 중부권은 드론 정보통신기술(ICT) 및 소프트웨어 융합부품 기반조성 및 드론 이차전지 산업 육성, 영암·무안·해남·목포 등 서부권은 항공 MRO와 연계한 전문생산단지 조성, 전문인력 양성, 유망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을 맡게 된다.

고흥 등 동부권은 비행시험·인증·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경량소재 부품산업 육성에 주력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발표한 규제자유특구 1차 협의대상에 전남은 이-모빌리티 산업이 선정된 바 있어 드론 산업이 추가로 규제자유특구 대상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남도는 지역전략산업의 경우 규제자유특구로 우선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하반기 다시 도전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윤 부지사는 "드론 산업은 지난 2015년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뒤 5년 동안 꾸준한 투자를 통해 인프라를 갖췄으며, 빛가람혁신도시 내 관련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는 등 여러 여건에서 전남이아말로 국가 드론 산업의 중심지"라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전남의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서의 입지를 굳혀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경제단체연합회 '노사상생도시광주' 협약식 이윤섭 광주시장이 22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노사상생도시광주' 만들기 실현을 위해 '광주시-경제단체연합회 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일본 해외시장개척단' 158만달러 수출 협약 체결

광주시가 최근 열린 일본 수출상담회에서 158만달러의 수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일본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해 현지 바이어를 상대로 종합 수출상담회를 열었다. 이번 상담회에서 총 108건 1천121만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을 하고, 13건 158만달러 상당의 수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일본 도쿄와 오사카 등 2개 지역에서 진행된 수출 상담회에는 사전 시장조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선정된 메카라인 등 모두 10개 업체가 참여했다. 이들 광주지역 기업들은 까다로운 일본시장을 대상으로 자

사 제품의 우수성과 효용성, 가격경쟁력 등을 설명하고 샘플 판매와 세부적인 수출계약조건을 논의하는 등 일본 바이어의 관심을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한편, 전남도는 오는 26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수도권 기업 CEO 300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설명회를 연다. 이날 설명회는 전남의 주력산업인 관광산업·에너지산업·식품·지식정보문화산업·철강 석유화학 산업의 미래 잠재 투자기업을 사전 발굴하는 자리로, 목포시·장흥군 등 7개 시·군과 한진·전남테크노파크 등 8개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김지을 기자 dok2000@·오광록 기자 kroh@

'해양쓰레기 없는 전남 해안 만들기' 나섰다

전남도, 수협·해양환경공단 등과 협약

2022년까지 쓰레기 제로화 총력

전남도가 '해양쓰레기 없는 전남 해안 만들기'에 나섰다.

전남도는 22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수협중앙회·해양환경공단·한국수산업경영인 전남도연합회와 '해양쓰레기 제로화 업무협약(사진)'을 체결했다.

참여 기관들은 이날 협약에 따라 쓰레기 없는 깨끗한 전남 바다 조성을 위해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사업을 추진해 2022년까지 해양쓰레기를 제로화하는 데 총력을 쏟기로 했다. 매년 2만6000 t의 해양쓰레기가 유입되고 있으며 수중에도 8만7000 t의 쓰레기가 쌓여있다는 게 전남도 분석으로, 더 이상 해양쓰레기 문제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남도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관련 예산을 전년

도에 견줘 46% 늘어난 125억원을 편성하는 등 올해 '해양쓰레기 제로화 원년의 해'로 정하고 적극적인 수거 활동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들 기관들은 전남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관리 방안에 대한 기관별 협력사업을 발굴해 추진하는 한편, 수협중앙회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닷가 만들기 운동'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남도는 또 국내 유일 해양환경 전문기관인 해양환경공단과 해양환경교육, 해양오염 대응, 해양생태계 보전 분야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

양식업이 발달한 전남의 특성에 따라 한국수산업경영인 전남도연합회를 통한 어업인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어업인 인식 제고를 통한 조업 중 쓰레기 저감 실천 운동도 펼친다.

전남도는 오는 24일 고흥 녹동항 바다정원 일원에서 '해양쓰레기 제로화 자정결의대회'를 열거 쓰레기 수거 활동을 벌인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조작 철저한 수사 촉구 잇따라

전남도의회·시민환경단체 성명

여수산단 대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조작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22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광양만권 해양생태계 보전 특별위원회와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해를 중심으로 성명을 내고 여수산단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축소 및 허위 성적서 발행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날 내놓은 성명에서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조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예외 없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의원들은 또 "사업장이 '셀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측정하거나 대행업체를 통해 측정하는 규정 때문에 사업장의 은밀한 오염물질 측정값 조작행위가 제재 없이 장기간 자행됐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도도 이날 여수산단에서 기업체, 시민단체,

관계기관 등과 대책회의를 갖고,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고강도 대책을 논의했다.

전남도는 여수시와 공동으로 향후 대기오염물질 배출 굴뚝의 오염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유해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 측정하는 이동측정차량을 2020년까지 도입해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굴뚝 자동측정기 설치도 현재 57개 업체 164개 굴뚝에 설치된 것을 2021년까지 244개 업체 1173개로 확대토록 사업장에 권고하기로 했다.

여수국가산단환경특별감시전담기구를 여수시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한편,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조기 시행도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앞서 여수환경운동연합과 순천환경운동연합 등 광양만권 환경단체는 최근 "LG화학, 한화케미칼 등 일부 부도덕한 기업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값을 조작 축소하는 집단적 범죄행위 일삼았다"며 "광양만권 입주업체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폭 감축하라"고 주장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장성67주년 광주일보

장성군 Jangseong

청정도시 엘로우 시티 (Blue City)

아름다운

사계절 노란색 꽃과 나무가 가득한 자연친화적 도시
황룡강 르네상스 시대를 열고 있는 아름다운 색채 도시